

호매칼럼



류준식 시인·작사가

지금까지 우리교육은 '얼마나 아느냐? 무엇이 되느냐?'에 혈안이 되어왔다. '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. 땀 잡는 게 매다.'

나밖에 모르는 한국인

이 들끓고 불법이 판을 친다. 자존심이 상했다 하여 사람을 죽이고도 뉘우침이 없는 현실이 되었다. 성폭행과 유괴가 횡행한다.

'책임을 다하도록 하라.' 미국인은 '악한 자를 도와주어라.' 일본인은 '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.'고 가르침을 준다

이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. 우리국민이 가장 부족한 덕목은 무엇인가? 그 물었을 때 "남을 배려하는 마음"이라고 했다.

원인과 과정은 교육의 중심이어야 하고 삶의 철학이어야 한다. 먼저 인간그릇이 바로 만들어져 거기에 배움을 담을 때 그 알이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.

독자투고

전기차 충전시 안전수칙 준수하자



신종휴 /여수소방서 소방정대장

니 주의해야 한다. 둘째 급속충전보다는 완속충전이 안전할 뿐 아니라 배터리를 길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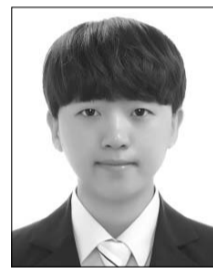
일곱째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를 사용해야하고 커넥터가 정확하게 연결 되었는지 확인 한 후 사용을 한다.

전기차 화재시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일반 차량의 화재보다 화재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 1차량 1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.

하는 숙박시설은 소화기, 감지기,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하기,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시설은 가스 연소기 주변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하기 등 안전시설을 확대·설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.

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, 소방서에선 이 시기를 특별하게 생각해 화재와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.

캠핑장·펜션 등 안전시설 설치 안전한 휴식 보장



한연경 /담양소방서 소방행정과

코로나19바이러스로 달라진 일상 생활 변화로 장박, 차박 등 캠핑장·펜션의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장·펜션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기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시설(감지기, 소화기, 일산화탄소경보기, 가연성가스경보기)을 확대 설치해 미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.

Table with 2 columns: 병원응급실, 교통안내. Lists emergency numbers for various hospitals and bus routes.

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, including contact info, subscription rates, and office address.

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



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?



NEW AGE NEWSPAPER - THE HONAMMAEIL 호남매일

-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
•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
•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

- ▶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: (062)363-8800
▶ 주소 :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(신안 264-1)
▶ 기사제보·독자 의견 • TEL : (062) 363-8800
• FAX : (062) 362-0078
▶ 광고문의 • TEL (062) 363-0005
▶ 서울지사(취재본부) : 010-8803-1472
▶ 인터넷 참여 : http://www.honmae.co.kr
▶ E-mail : honamnews@hanmail.net
honammaeil@naver.com

Table with 3 columns: 지국안내, 지사안내, and contact numbers for various regional offices.